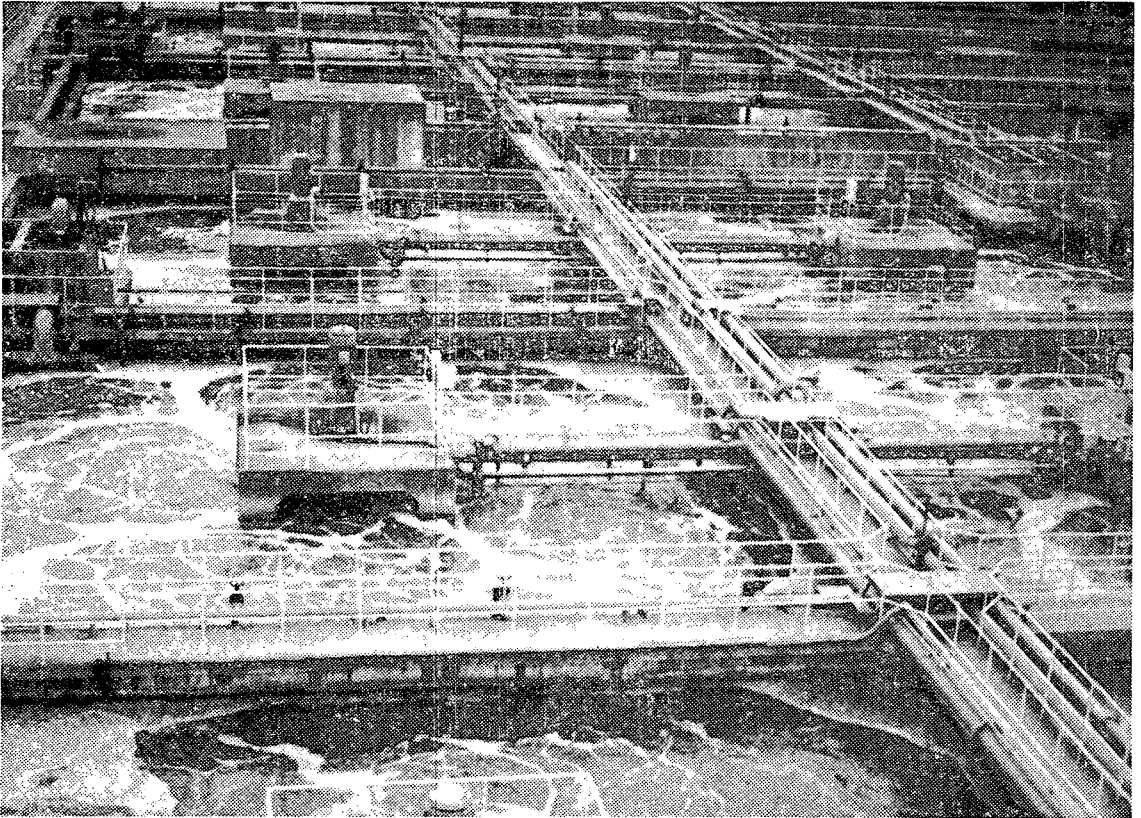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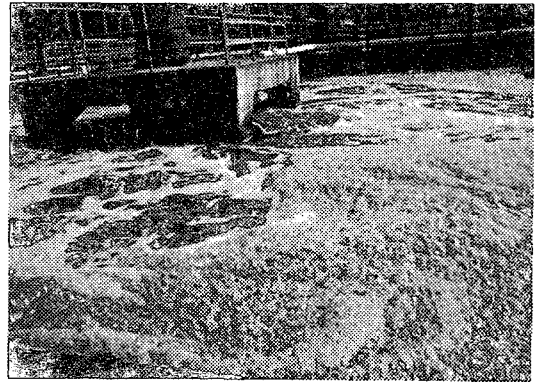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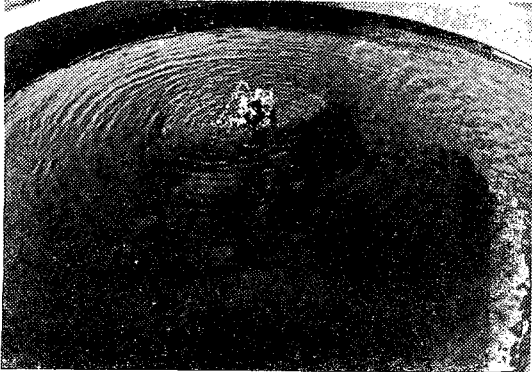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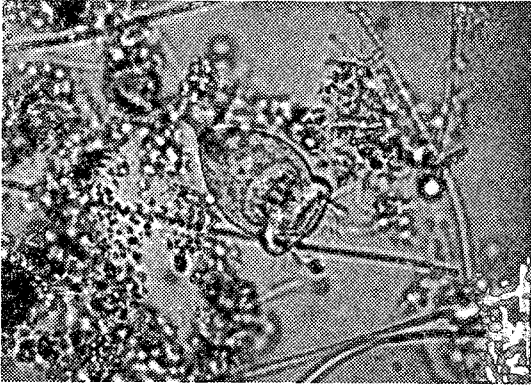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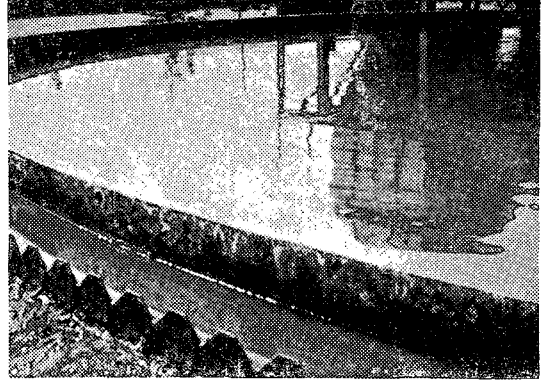
제 6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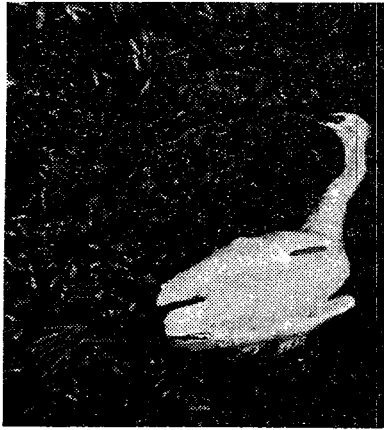
環境保全 寫眞 공모 入賞作



金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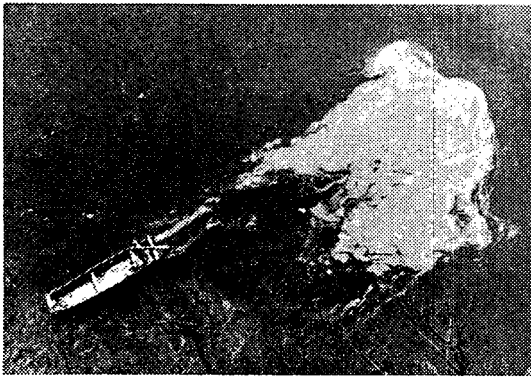
〈정화〉 폐수가 각종 과정을 거치면서 오염이 안된 용수로 되는 과정을 촬영했다. 정화된 물에서 수많은 금붕어가 유영하는 것이 경이롭기까지 하다. 허용선작(서울 강동구 명일동) 인천에서 촬영('88년 4월) — 上, 右가 한 판넬로 제출된 조합작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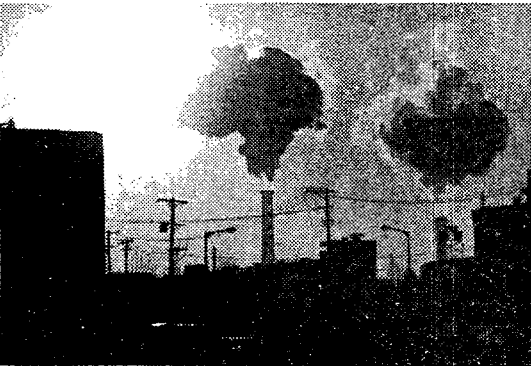
銀賞

〈참사현장〉 보기에도 끔찍스러운 광경이다. 오염으로 인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고, 철새가 그 고기를 먹고 죽어있는 듯 하다. '87년 6월 16일 충남 논산군 강경읍에서 안병옥씨(충남 대전시 동구 오정동 303)가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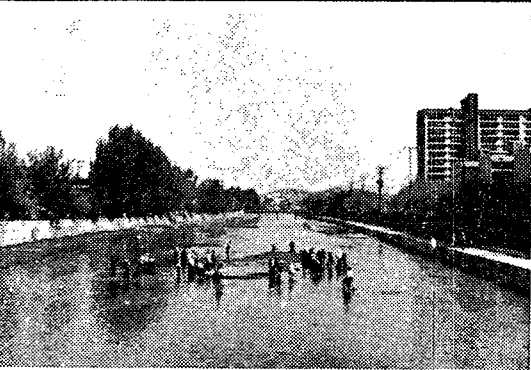
銀賞

〈이 맑은 물에...〉 이 사진은 조상의 얼이 깃든 경북 안동군 하회리에서 촬영('88년 3월)한 것이다. 어찌보면 동양화같기도 한데 배끝머리에 오염된 부유물질이 새하얗다. 작가 윤태중(서울 노원구 공릉 2동 208-3 삼창아파트 6동 104호)은 「대한민국 국전 특선 및 입선」 「한국국제사진전입선」 「블란서 국제사진전 은상」 등 국내의 150여회 입상경력이 있는 베테랑이다.



銅賞

〈都心公害〉 '88년 1월 10일 이른 아침 마포구 합정동 로타리 부근에서 촬영한 것이다. 공장인 듯한데 「환경보전」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매연이 배출되고 있다. 「정화한강」으로 銅賞을 탄 윤호원씨의 작품이다.



銅賞

〈河川살리기〉 도심을 흐르는 하천은 대부분이 오염되어 있다. 이런 오염하천을 살리기 위해 시는 하상오염물질제거등에 힘쓰고 있다. 사진은 '87년 4월 서울 제기동 지하철역 부근 하천에서 촬영한 것으로 김가중씨(서울 종로구 명륜 1가동 33-68)의 작품이다.



銅賞

〈정화한강〉 한강개발과 함께 한강의 오염이 저감되었다고 한다. 한강이 지금처럼 정화될 수 있었던 것은 사진처럼 한강본류에 오염된 부유물질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작년 11월경에 잠실전철교 부근에서 촬영된 사진이다. 작가 윤호원(서울 송파구 신천동 시영아파트 22-45) 씨는 작년에도 本協會가 주관한 사진 공모에서 銅賞을 차지했었다. 제 23 회 동아 Salon 입선등의 경력도 있다.

세계환경의날 캠페인



회원사인 (주)거성종합엔지니어링은 서울 영등포로타리에서 캠페인을 전개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캠페인 전개 광경



책갈피 배포 광경



자라나는 어린 세대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환경보전운동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세계 환경의 날 기념 강연회가 6월 4일 서울 본협회 연수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있었다. 이 날 강연회에는 본협회 안기희 개발부장, (행정학 박사, 환경행정)이 '88 서울올림픽과 환경보전'에 관한 강의를 했다.



ENPROTECH '89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NTROL PROTECTION
 TECHNOLOGY
 EXHIBITION

7-11 March 1989
 World Trade Center
 Taipei, Taiwan R.O.C

Enprotech '89
 Taiwan Office 6F-2,
 No. 77, Nanking East Road,
 Sec. 4, Taipei, Taiwan, R.O.C